

특별기고

간지(干支)와 무자년(戊子年)



김창중
수필가
본지 자문위원

간지(干支)란 10간(干)과 12지(支)의 총칭이다. 중국 은나라때 부터 있었던 것으로 10간 12지를 짜맞춘 60간지로 날짜를 세는데 쓰인 것이 그 기원이다.

10간(干)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이고 12지(支)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로 간(干)은 나무줄기의 뜻으로 양

(陽)이며 간(干)은 하늘(天)을 지(支)는 나뭇가지의 뜻으로 음(陰)이며 땅(地)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지(干支)는 천지조화의 근본으로 즉 10간은 날(日)을 가리키기 위하여 12지는 달(月)을 가리키기 위하여 은(殷)나라 때 만들었고 12지를 하루의 시각에 배당하는 것은 전한(前漢)시대 시작되었으며, 간지에 대한 오행(五行)배당이 완전히 행하여져 연(年)·일(日)·시(時) 및 방위(方位)에 정확하게 배정되면 간지오행설(干支五行說)은 천지간의 근본원리가 된다는 오행참위학(五行參緯學)은 전한(前漢)말에 일어나 2천여년 동안 계속 되었으며 요즘 까지 존재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에도 오행설(五行說), 음양팔괘설(陰陽八卦說) 및 이들을 합친 음양오행설(陰陽五行

說)의 미신(迷信)은 우리 한민족 민중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이십이지(十二支)에 동물 이름을 붙여 쓰고 있다.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등의 동물)

또 이것은 각 방위(方位)로도 쓰인다. 간지는 갑자(甲子)에서 시작하여 계해(癸亥)까지 60간지로 이루어져 같은 간지는 60년에 한 번씩 돌아와 자기의 간지의 해가 돌아오면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여 잔치도 한다.

내 고향 포천의 명 현감이며 가난한 백성의 어버이였던 토정 이지함 선생은 토정비결이란 역서를 만들어 예언서로 민족의 희망을 주고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게 하였다. 심지어는 지(支)를 보고 운명, 성격등을 예언하고 궁합(宮合)을 본다지만 믿지 못할 미신(迷信)이다. 그저 심심할 때 재

미로 보는 것이다.

2008년 무자(戊子)년은 작년 정해(丁亥)의 뒤를 잇는다. 올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중국에서는 8월8일8시8분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60년전, 1948년은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하여 UN의 승인을 받은 광복, 독립의 해였다. 내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올림픽의 금메달을 다수 획득하기를 기원하고 내 고향 포천에도 훌륭한 분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60년전 독립의 해보다 더 기쁜 날이 오기를 소망함과 하느님께 기원해 보기로 하자.

잘은 모르겠으나 쥐띠의 해에는 풍성한 한 해였으며 국운(國運)이 융성했던 해였다. 청성산, 수원산에 떠오른 우리의 포천의 새 햇살처럼 더욱 붉게 타오를 것이다. 브라보 포천! 글로리 포천!

특별기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대하여



이한수
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병원 지어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의사들 키워낸 것도 아니고, 제 돈 들여서 공부하고 자기 돈 들여 병원 지었는데 강제로 지정하는 행방이식의 제도는 당장 없애야한다. 라는 주장이 있었지만(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물론 모든 병원과 의과대학을 국가가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국립대학과 부속병원, 그리고 보건기관은 예외지만 그러나 모든 사립대학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현 기득권 보호를 위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문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도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치료 기능은 물론 의료비 문제를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것은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보험료만 납부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불만이 대단하겠지요.

그러나 현행 우리의 건강보험은 서로 돕자는 공적부조 방식입니다. 1977년 공무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는 통합의 기초 속에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법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부에서는 당연지정제를 자율계약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화두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만약 자율계약제로 바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적 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수명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계약제가 나온 배경을 보면, 민간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시장 확대에 의해 더 이상 이익 창출이 어렵게 되자 모든 공보험을 확대 대상으로 보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틀막이면서 자율계약제를 법제화 하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국민과 무관한 민영보험회사들의 주주들에게 몽땅 돌아가는 결과만 남겠지요.

기관 접근권이 막혀 60년대와 같이 치료비가 없어 병이 나도 집안에서 스스로 낫기를 기다리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을 이용하고 중병으로 접이되면 목숨을 잃는 일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국민자들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민간보험사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우선 공보험은 완전하게 발가벗겨져 민영보험회사들과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영역에서 이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다시 말해 의료가 환자에게 진열된 과자처럼 돈벌이 수단이 되어 일부 상류층에 해당하는 부유층은 고급 진료와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크'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다리의 상처를 스스로 깨매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현재 의료 상황을 파헤치는 모습이지요. 이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상품화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년에 그랬지요. 미국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000씨가 맹장수술을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민영보험료가 월 90만원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수술하러니 1천만원이 되니 한국에서 치료받고 왕복 항공료를 지출해도 이익이라고 귀국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 대학의 대학교수 한 분이 미국의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를 하였는데 속이 아파도 위 내시경을 못 했다고 합니다. 너무 검사와 치료비가 비싸고 의사 만나기도 힘들어 국내에 들어와서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몇 만원으로 검사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의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열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살고 계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 대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존재하는 공단일까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보험이 제도화 된다면 우리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심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각자가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오.

만약 의료산업화세력의 요구대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소수의 의사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민영보험사들이 패권을 장악하면 공보험 체제에서 수가조정과 심사기능은 그 정도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개업의사들까지도 회복 불능의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요. 따라서 의료인들 또한 이 문제를 절대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라 생각하십시오.

결국은 호텔 정문 앞이나 골프장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과 형편없는 고물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받는 차별을 이제 의료에서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기를 국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세이 61

행복은 친밀함의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



이호연
영양전문가
교육

대망의 2008년이 되었다. 2008년을 필자 나름대로 풀이해 본다. 2008년에서 2x4=8이라는 수식을 만들어 본다. '이해하고(2)', '사랑하면(4)' 하면 '팔자 고친다(8)' 즉 2008년도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2)', '사랑하는(4)' 한 해로 정하고 살다보면 '必有餘慶' 즉 훨씬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팔자(8)'가 좋게 고쳐진다고 풀이하고 싶다.

각박한 사회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여유가 없어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남에게 관심을 들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없고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역할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조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이 무석 지음, 비전과 리더십, 2007)

에서 소개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 아무 불일 없이 만나고 그냥 좋고 편한 사람들이 있다. 잘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그런 사람. 이런 관계의 사람과는 무엇을 해도 좋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친밀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친밀함은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 첫째 서로 통하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서로 깊고 도와주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용 가치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 셋째는 나눔이다.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친밀함은 사랑, 로맨스 그리고 우정과 다르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으면 이중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다. 친밀함이 모든 행복과 인간관계에 에너지가 불어 넣어 주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 한 번도 사랑에 빠져 보지 못했고 상대와 심각한 관계가 될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 친밀함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혹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다가 자주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 또한 친밀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친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일도 잘되

고 인생의 짐도 수월해 지며, 자존감을 높여 주고, 행복수도 올라간다.

친밀함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주는 면역 세포와 같다.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바이러스에 강하다. 친밀함은 직장 스트레스, 돈 스트레스, 가정 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혹시 앞에 걸려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다.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부자와 같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쳐도 큰 고통을 하지 않고 잘 넘긴다. 또한 겨울에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과 같다. 강추위가 몰아쳐도 코트가 따뜻하면 끄떡없다. 반면에 친밀함이 결핍된 사람은 코트 없이 겨울을 나는 사람과도 같다.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오돌오돌 고독감이라는 추위를 탄다. 심할 때는 정신병이라는 폐렴에도 걸린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으로 첫째, 치료자가 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친밀함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감정이다. 인간을 치유하는 치료적인 감정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는 아내나 남편일 수도, 친구일 수도, 선생님일 수도, 의사일 수도 있다.

둘째로, 힘없는 나를 용서하라. 힘없고 무능하다고 자신을 꾸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자신을 꾸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셋째로,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좋아해요"라고 할 때 혹시 당신의 심리적 반응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잘 모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라면 당신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이다. 당신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넷째로, 친밀함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형성된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에게 시간을 내줘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친밀감이 생길 수 없다.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다섯째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느낀다.

여섯째로, 대인관계의 아픔을 피하지 말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아픔을 당하며 산다. 이런 아픔을 피하기 위해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면 친밀함도 사라진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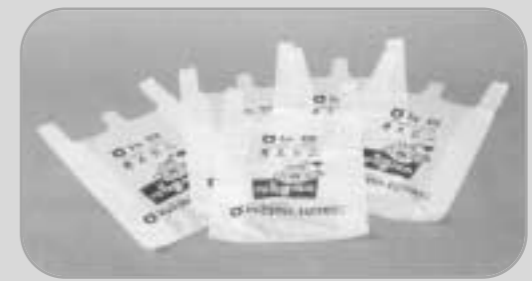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 · 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